

인사말

통일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걷습니다.



통일은 아주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주 가까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북이 너무도 크게 이질화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북한과 통일은 너무도 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루도 빠짐 없이 방송에서 듣고 보는 북한과 관련된 온갖 소식들은, 북한과 통일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운 이야기인지를 확인시키곤 합니다.

통일은 우리 시대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미래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미래에 통일을 다룰 주역들이 될 학생들에 대한 통일 관련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통일보건의료센터에서는 지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교과목 개설에 집중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옴니버스 프로그램 지원대학 선정을 받아 의과대학 본과 1,2 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택과목 <통일과 의료>가 3분기에 개설되게 되었습니다. 간호대학에서도 2학기에 교과목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대학과 약학대학에서도 통일을 주제로 한 수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의 보건의료를 이끌어 갈 우리 학생들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6월 27일 통일 토크콘서트 <북한을 묻다, 북한을 말하다>가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10월 30일 있게 될 <제3회 세브란스 통일의 밤>은 모든 연세의료원 가족들이 참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을 바라보면 통일은 불가능한 것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출애굽이 불가능한 일로 보였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을 때, 출애굽은 홍해를 가르며 이루어졌습니다. 통일도 그렇게 이루어지겠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통일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통일, 그 위대한 여정의 홍해 길을 연세의료원의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걸기를 소망합니다. ■

시대적 소명을 이루는 리더의 마음으로

이재훈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통일이란 개념이 언제부턴가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멀리 있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생각 되기 시작 한 것 같다. 미국 언론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남한의 대부분의 중산층이 통일 보다는 현재의 안정을 택한다고 응답을 했고 북한의 기독교층 역시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곰곰이 스스로를 돌아보니 나의 마음의 한구석에도 현재의 안정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돌아 보게 되었다.



통일의 밤 행사를 준비 하면서 통일이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노력과 관심으로 준비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느꼈고 통일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 당면 과제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계몽 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하게 되었다. 통일의 밤과 같은 행사를 통해 특히 우리 연세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한 데 모아서 앞으로 더욱 실제적인 통일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연세의료원은 시작이 그러했듯이 기독교정신 안에서 부여 받은 시대적 소명을 이루어 가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기독교 정신이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자기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과거 이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독립 운동을 했던 많은 독립투사들도 이 같은 기독교정신으로 살았던 선각자들 이었을 것이다.

통일 준비 과정 역시 그렇다고 생각 한다. 통일은 영리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부수적인 이득이 있는 과정도 아니다. 다만 역사적 시대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꼭 반드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 라는 의미에서 기독교정신 안에서 시대적 소명을 이루어 가는 연세의료원에게 있어서 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 인 것이다.

따라서 연세의료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계속해서 부족한 의료 물자를 지원해 주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남북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 가며 통일 후를 예측하여 통일 후 의료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그리고 계속해서 남북간의 의료 수준 격차를 줄여 나아가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논의 해야 할 것 이다. 특히 예비의료인들인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심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한다

이러한 준비과정에 있어서 특히 연세 의료원은 의료계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리더의 역할을 잘 수행 해 나아갈 때 다른 기관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통일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가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 한다. ■

통일은 아직도 멀기만 할까?

김재송 세브란스 약무국 파트장

어린 시절 6월이 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동요를 참 많이도 불렀고, 반공 웅변대회에 나가서 두 팔을 곧게 뻗어 “이 연사 목놓아 외칩니다!”라며 피대를 울리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몇 십 년이 지난 지금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제로 남아있다. 과연 통일은 언제쯤 이뤄질까?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남북한의 상황에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통일에 대비한 연구, 교육, 대북 지원 등의 활동을 위하여 연세의료원에서는 통일보건의료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통일에 대해 무지했던 나는 지난해 4월 통일보건의료센터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탈북자 출신으로 유일하게 남한 약사 면허증을 취득한 이해경박사가 강의를 한다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북한의 약사제도, 각 약학대학의 교육기간 및 커리큘럼에 대해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또한 그 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약학 분야에서도 통일 준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일보건의료센터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위원 활동 중 북한의 실상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미 의료원의 의대, 치의대, 간호대에서는 기획단을 만들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 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늦긴 했지만 약학기획단도 만들어 보자는 전우택 센터장님의 의견으로 지난해 10월 연세대 약학대학과 세브란스병원 약무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약학기획단 발대식을 하였고, 발대식을 통해 약무국 약사, 약학대학 교수, 학생 등 총 16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통일준비 활동의 의지를 다졌다.

그런데, 약학기획단 발대식을 준비하면서 연세대 약학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젊은 세대가 얼마나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지 충격을 받게 되었다. ‘나에게 통일이란?’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혼합되어 통일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양상을 엿볼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 34.2%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의 주목을 끌었다. 궁금하긴 하지만 염원은 아니며, 윗 세대를 위한 숙제,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 먼 미래다,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세대에는 전쟁을 겪으신 부모님과 함께 살던 조부모님을 통해서 남북한이 한민족임을 당연하게 여겼었고, 북한의 그들에 대해 연민과 안타까움, 통일이 어서 빨리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런 간접 경험조차 전무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은 아직도 멀기만 할까? (계속)

김재송 세브란스 약무국 파트장

따라서, 이러한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언제 될지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한민족이며 최종적으로 통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숙명이며, 우리는 언제나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고, 통일이 된다면 보건의료 종사자인 우리들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약사들도 젊은 세대에게 통일에 대해 각인시키는 역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 누구보다 먼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 바로 내일이라도 이뤄질 수 있다. 갑자기 통일된 그날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북한 주민 2,500만 명 중 평양의 특권계층 2백 만 명을 제외한 북한 주민은 헐벗고 굶주리고 제대로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 모두를 하나로 바라보면 안 되는 상황이다. 어릴 때 묶여 있던 말뚝을 다 성장한 커다란 코끼리가 무서워하듯 어려서 세뇌 받은 그들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북한 체제에 순응하며 살고 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에서 탈북자 며느리를 무시하며 구박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탈북인 3만 명인 현재 우리의 자화상은 아니었을까? 그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우리가 보듬어야 할 우리 민족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배고픈 아이보다 외국 재난 지역의 아픈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럽고 가슴 아파해야 할, 우리가 보듬어야 할, 더 관심 가져야 할 숙명의 대상이 바로 북한 주민이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고, 앞으로 하나가 될 한민족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밤'을 준비하면서 약학기획단 발표 동영상에 삽입했던 오준 대사의 UN 연설을 소개하면서 우리 병원약사들도 먼 훗날 후배 약사들에게 옳은 일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비록 북한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고 분단의 고통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겨우 수백 Km 떨어진 그곳에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먼 훗날, 오늘 우리가 한 일을 돌아볼 때, 우리와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제23차 통일보건의료세미나



- 일시 : 2017년 4월 25일 (화) 18시
- 주제 : 국제보건과 지속가능발전
- 장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대회의실
- 발제 : 윤세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 지속가능발전 전공 교수
- 주요 내용: 사회복지법 및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체제 전환 개발도상국의 사례가 통일 한반도의 보건 의료전략에 시사하는 바



제24차 통일보건의료세미나



- 일시 : 2017년 5월 23일 (화) 18시
- 주제 : 북한 핵과 인권, 그리고 통일 문제
- 장소 : 연세의료원 종합관 교수회의실
- 발제 : 오 준 전 UN대사
- 주요 내용: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외교 일선에서 다루어 온 오준 전 UN대사가 북한 문제와 우리 민족의 통일에 관한 생각을 나눔



제25차 통일보건의료세미나 - 통일 토크콘서트

- 일시 : 2017년 6월 27일 (화) 18시
- 장소 :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
- 패널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동식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 내용 : 북한 다큐멘터리 <태양아래> 편집 본 시청, SNS연동한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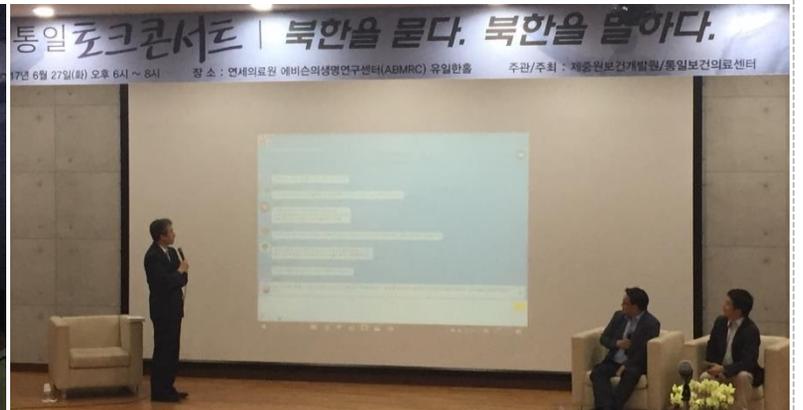
세미나 스케치

지난 6월 27일 저녁 6시,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 홀에는 북한을 궁금해하는 학생 및 교직원 60여명이 모였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북한 현실을 생생하게 경험한 강철환 대표와 김동식 국가안보전략 연구원을 만나기 위해서 이다.



북한 다큐멘터리 <태양아래>를 20여분 간 시청하고 본격적 토크콘서트가 시작되었다. SNS채팅창을 통해 익명으로도 질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참여자들은 북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했다. 탈북과 재입북, 재탈북을 하는 이유, 공작원이

한국으로 올 때 위장하는 방법, 북한 내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질문등과 함께 한국 사회, 한국 정권에 실망한 점,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등 북한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었다. 이에 강철환 대표는 재치 있는 답변으로 재미를 더하고 북한 정예공작원이었던 김동식 연구원은 사실적인 답변으로 청중을 집중시켰다.



북한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통일

지난 5월 23일 제 24차 통일보건의료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 준 전UN대사가 외교 일선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전하는 한 편 북한 핵과 우리 민족,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세미나 스케치

왜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7만 명이 투하 즉시 사망했고 그 후에도 방사능으로 인해 비슷한 수준의 사상자를 냈다. 현재 핵무기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100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녔다. 이런 이유로 각 국은 핵무기 증강을 위해 경쟁했지만 같은 이유로 평화를 위한 협의, **핵확산방지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북한 핵 문제의 흐름

북한 역시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플루토늄 추출량을 거짓 신고하고 NPT에 근거한 특별사찰 요청을 거부하며 NPT 탈퇴를 선언하는 등 90년대 들어 NPT정신에 반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후 북한의 NPT잔류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2006년 북한은 1차 핵 실험 강행을 시작으로 2-5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또 이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수준이다. 북한 광물 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 및 제한, 해외 북한 은행의 폐쇄 및 활동 금지, 대북 항공유 공급 및 판매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동으로 NPT의 전제와 존립이 위협받아 핵 도미노가 발생하여 국제사회의 전략적 균형이 깨지는 것을 우려한다. 전략적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미국이 **핵 우산** 역할을 하거나, 일본이 핵을 갖거나, 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에 태어났을 뿐인 북한 '사람들'

90년대부터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4년 발표된 UN인권조사위원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는 인류에 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원칙**이 발동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UN안보리는 최초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의제로 채택하고 토의했다.

핵확산방지조약
(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핵의 비확산, 핵무기 군비 축소, 핵 기술의 평화적 사용을 골자로 하는 조약

핵우산(Nuclear Umbrella)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의존하는 핵보유국의 핵전력을 비유한 말

국제형사재판소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법정

보호책임 원칙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 학살하거나 인종청소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 저지르는 등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 국제사회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국제규범

‘인간’으로서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관점에 더해 우리에게 북한 사람들은 ‘동질성’을 지닌 ‘같은 민족’의 관점이 추가된다. 분단 이전에는 생활양식, 심리적 습관, 문화, 역사 등을 공유했지만 단지 한반도의 북쪽에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억압과 탄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억압과 탄압의 고통에서 벗어나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우리는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

통일을 위한 세 축

우선 국제사회의 비핵화체제 수호 흐름에 맞도록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제 사회의 공조가 없으면 북한의 개혁개방이 어렵다. 둘 째, 남북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북한 사람과 우리들의 동질성을 인식하는 것이 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 째,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필요하다. 3년 전 서울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0%도 되지 않는다. 젊은 세대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동질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 A

1. 인도적 지원 중 의료적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가능성이 큰 부분인지?

의료지원이야말로 인도적 지원 중에도 남용될 가능성이 적고, 다른 국가들의 보건안보 확보의 측면에서도 유익하며 특히 영양실조 문제는 통일 이후 우리 민족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실천 효과나 가능성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2. UN의 대북제재결의 등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북한을 막지 못하고 인권결의안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좀 더 강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가?

UN은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강제로 힘을 사용해 제재를 가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과거에는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인권문제에 대해 Naming and Shaming 에 그쳤다면, 20여년 전부터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와 책임보호원칙 등을 도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권결의의 목적은 해당 국가가 강변하고 반응하는 것이기에 그 효과가 있다고 본다. 북한이 언젠가 정상적 국가로 작동하려면 개혁개방이 필요할 텐데 그 Moment of Truth가 왔을 때 UN의 제재가 북한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이 때 북한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순간을 기다리며 제재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이다.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 쌓여서 마침내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지푸라기처럼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반면 핵 문제는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UN결성의 목적이 종전 후 전쟁 방지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제력 행사의 여지가 있다.

연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권만재 학생



□ 통일보건의료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의과대학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관심 있는 분야라 참석하게 되었어요. 통일보건의료에 대해서는 Doctor & Medical Humanities 선택과목에서 전우택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2년여 전 통일보건의료 세미나에서 인요한 교수님께서 하신 강의 역시 흥미롭게 들어 이번 세미나도 참석했어요.

□ 평소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개인적으로도 분단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요. 이북 출신인 외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군인으로 참전하셨고, 전쟁 종식 후 이북에 계신 가족과 영영 이별하시게 되었죠.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열리기도 했지만 외할아버지는 고향의 가족들은 다시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한 민족임에도 단절되어 사는 것, 한 쪽은 부유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억압과 탄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분명 한 민족,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왔기 때문에 통일은 당연하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 오준 대사님 강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인권의 관점에서 북한 사람들을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바라볼 것을 강조하며 통일의 당위성을 시사해주신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평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하여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오준 대사님 강연에 오기 전 기대한 것은 국제사회의 정세와 한국의 외교적 위치를 고려한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시각을 듣는 것이었어요. 강연을 들은 후 현실 정치적 시각보다 인권의 시각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어요.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열망하는 것이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강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인식과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통일을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앞으로 통일보건의료 분야에 바라는 것이 있나요?

북한 출신 보건의료 분야의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대감과 동질성을 가지게 되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한국 대학에 북한에 대해 관심 있는 의대생이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현재는 관심이 있더라도 정보가 산발적이어서 방향성을 잡고 지속적 관심을 갖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통일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면 좋겠어요. 대비하지 않고 느닷없이 통일을 맞이하면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

새터민 간호사가 경험한 남한의 간호교육과정 연구

- 발주처 : 통일보건의료학회
- 연구책임자/연구기간: 추상희 교수/ 2016.10.01 - 2017.06.30
 - 새터민 간호사가 경험하는 국내 간호교육의 경험을 중심으로 적응과정, 어려움, 장애요인 파악
 - 공식 지원 지지시스템 구축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통일 이후 간호 교육의 통합에 필요한 간호 교육의 방향과 내용 수립에 효율적인 방안 제시

기타·광고 (1)

주요 활동 알림

- 의과대학 본과 3학년 「리더십프로그램」 진행
- 2학기 통일보건의료 세미나 일정

일시	5월 20일 (토) 오전 9:30 - 오후 12:30
목적	북한 사회와 보건의료 이해 및 보건의료인으로서 통일시대에 대비
내용	「굿바이 레닌」, 「태양아래」시청 후 토론

일시	세부사항
9/26(화) 오후6시	발제: 김성민 건국대 교수 주제: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통일 패러다임 (예정)
10/30(화)	제 3회 세브란스 통일의 밤
11/28(화) 오후6시	발제: 김진숙 보건복지부 사무관

- 의대 3분기 통일관련 선택과목 개설

과목명	통일과 의료	책임 교수	전우택 교수
대상	본과 1, 2학년 30여명	학점	1학점
내용	8월 3주~10월2주 총 6주 과정으로 의대생들의 북한 사회와 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일 시대에 준비하는 보건의료인을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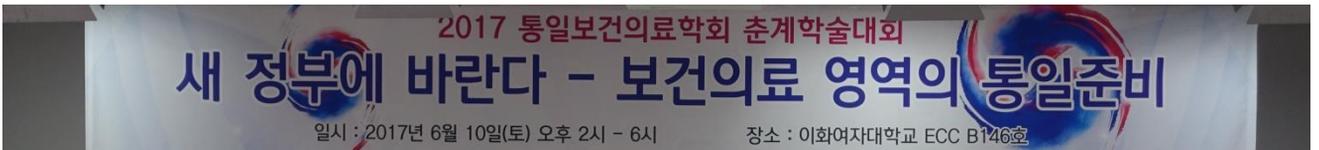
- 「유니버스 특강 지원사업」 대상 선정

주관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사업 취지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대학통일교육의 체계화		
사업 수행 계획	- 특강 3회 및 현장학습 1회로 구성		
	책임 교수	전우택 교수	
	특강 및 강사(예정)	분단과 북한사회의 이해 영화와 소설 속 북한 사람들 북한 사람 이해하기	(김성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 (전영선 건국대 교수) (정병호 한양대 교수)
	현장 학습	판문점 및 제3땅굴 등 방문	
- 2017학년도 3분기 의대 선택과목의 커리큘럼으로 포함			

통일보건의료 학회 관련 소식

○2017 춘계 학술대회 진행

일시	2017.6.10(토) 오후2시-6시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B146호
주제	새 정부에 바란다 - 보건의료 영역의 통일준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교류 현황과 바람직한 정부와 민간 단체의 남북교류 협력방안 제시 - 통일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발전 필요성 강조 - 작년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통일보건의료관련 연구 소개 		



○2017 추계 학술대회

일시	2017.10.13(금) 오후 2시-6시
장소	동국대학교 일산캠퍼스
주제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통일준비

○학술연구 지원비 공모

일시	2017.9.4(월) ~ 10.2(월)
----	-----------------------

